



미 증시, 고용지표 둔화 및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으로 반등

미국 증시 리뷰

6 일(목) 미국 증시는 휴장을 앞두고 3 월 고용보고서 경계심리가 높아지며 거래량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 둔화에 따른 연준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이 높아지며 반등에 성공. (다우 +0.01%, S&P500 +0.36%, 나스닥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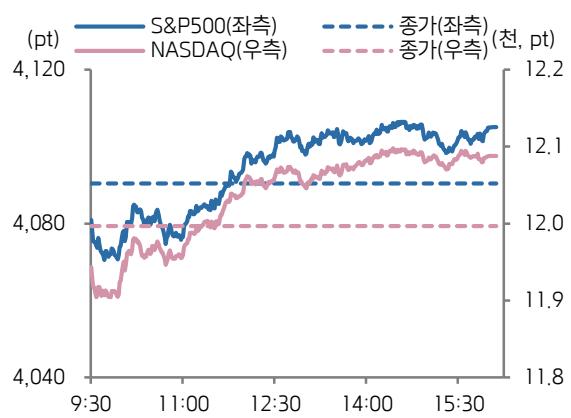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8 만건(예상 20.0 만건, 전주 24.6 만건)으로 소폭 하락.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82.3만건(예상 169.9만건, 전주 181.7만건) 기록 하며 예상치 상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1 분기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GDP 성장률이 2022년 하반기에 개선됐고,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성장률은 지난 3 일 기준 1.7%였다"고 언급하며 실질 소비지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변동성이 큰 물가 움직임을 제외한 근원 PCE 인플레이션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헤드라인 수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 좋은 징조라고 언급.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4 월 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5 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이며 금융 부문 위험이 경제에 하방압력을 가할것이라고언급. 또한 아시아의 신흥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강하며 올해 세계 성장의 절반이 인도와 중국에서 올 것이라고 언급.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90%에서 고금리 영향 등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하는 가운데 저소득국은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수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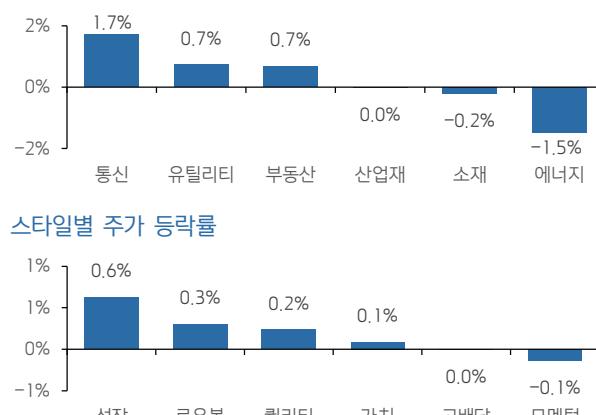
업종별로 통신(+1.7%), 유太高(0.7%), 부동산(+0.7%) 업종은 강세, 에너지(-1.5%), 소재(-0.2%), 산업재(0%) 업종은 약세. OPEC+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우려 부각되며 유가는 하락했으며 에너지 업종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애플(0.55%), 알파벳(3.78%), 아마존(0.95%), 메타(2.18%) 등 주요 시총상위주들은 반등에 성공.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59.23	-1.44%	USD/KRW	1,319.08	+0.65%
코스피 200	317.82	-1.77%	달러 지수	101.82	-0.03%
코스닥	865.58	-0.78%	EUR/USD	1.09	-0.03%
코스닥 150	1,296.49	-0.2%	USD/CNH	6.88	+0%
S&P500	4,105.02	+0.36%	USD/JPY	131.75	-0.02%
NASDAQ	12,087.96	+0.76%	채권시장		
다우	33,485.29	+0.01%	국고채 3년	3.220	-4.7bp
VIX	18.40	-3.56%	국고채 10년	3.282	-4.5bp
러셀 2000	1,754.46	+0.13%	미국 국채 2년	3.831	+5.1bp
필라. 반도체	3,071.77	-0.46%	미국 국채 10년	3.305	-0.6bp
다우 운송	13,966.32	+0.37%	미국 국채 30년	3.551	-1.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09.45	+0.26%	WTI	80.7	+0.11%
MSCI 전세계 지수	646.07	+0.16%	브렌트유	85.12	+0.15%
MSCI DM 지수	2,790.10	+0.22%	금	2026.4	-0.45%
MSCI EM 지수	984.43	-0.35%	은	25.09	+0.22%
MSCI 한국 ETF	59.96	-1.09%	구리	401.55	+0.7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6.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나스닥 등 성장주 중심의 미국 증시 약세가 국내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변화 여부
- 환율 레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강도 약화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이번주 예상치를 상회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의 경우 지난주 수치는 계절조정 영향으로 19.8 만건에서 24.6 만건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판데믹 이전 수준 평균인 22 만건을 상회하는 수준. 외사에서는 계절 조정의 왜곡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연초부터 평균 약 4.5 만건 정도 낮게 발표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지금까지 고용환경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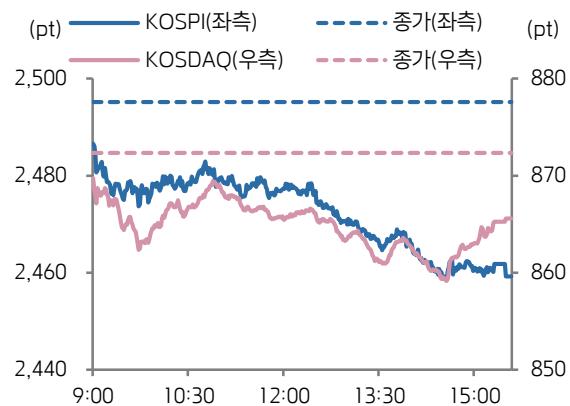
현재 3 월 비농업 고용 컨센서스는 23.8 만명(전월 31.1 만명),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6%로 형성. 특히 근원 PCE 물가에 선행하는 시간당 평균 임금상승률 YOY 4.3%(전월 4.6%)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하락 전망에 대한 근거를 강화시켜주는 요인. 지난 3월 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월간 고용 순증 10만명을 언급한 바 있음.

향후 실업률 상승 및 경기 경착륙 우려 반영하며 시장은 조정받을 수 있겠으나 1) 경기침체 우려는 작년에 이미 선반영한 예상 가능한 악재, 2)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 등을 감안했을 때 약세장 진입에 베팅하기 보다는 조정 시 비중확대에 베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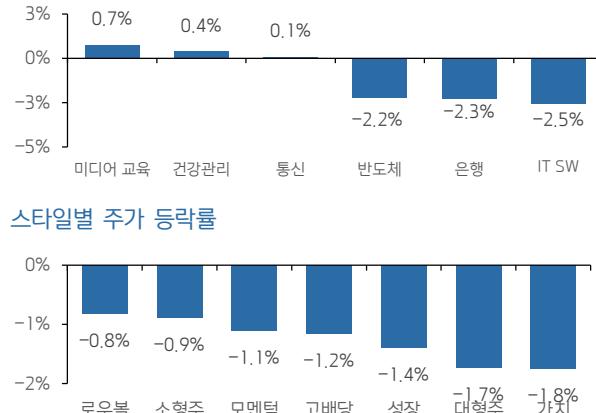
6 일(목) 국내증시는 미국 고용 및 ISM 서비스업지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유입,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른 달러강세 및 원화 약세, 외국인의 선물 2조원 순매도 등으로 하락 (KOSPI -1.44%, KOSDAQ -0.78%). 금일에는 미 증시 휴장을 앞두고 관망심리 유입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일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의약품 업종을 동반 순매수. 헬스케어 업종의 경우 금리가 급락하여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고 그동안 소외 업종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 조정 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한편, 코스닥에서는 이차전지 업종 역시 전반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특정 종목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차전지 업종 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았던 소재, 장비 업체에 대한 수급 쓸림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 존재.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될 삼성전자 1 분기 잠정실적(영업이익 컨센 7,200 억원, -95%YoY) 결과 및 향후 가이던스 확인 이후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분산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	